

“홍익 사상은 요익중생... 인류구원의 키워드”

새아침을 여는 대담

이홍범 박사(美 헌팅턴대 학장,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 : 진행 현진 스님(여의도 포교원장)

2014년 초입, 설렘과 기대를 안고 올 한해를 바라보듯 세계적 석학의 눈을 빌려 우리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전망해본다. 구급 12월 일식 귀국한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 이홍범 박사와 현진 스님의 대담으로 한국 사회의 앞날과 불교를 통한 인류 화합을 모색한다. 정리=배현진 기자

-이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연세에 비해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일제가 유심조라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생활이 40여년 되셨습니다. 그간 이력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헌팅턴 대학 칼리지 총장으로 있으면서 오바마 정부의 키친 캐비닛과 캘리포니아주 의회 8인 정책 위원, 세계 정치경제 학술협회 총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아시아 이상주의>를 힐러리 클린턴이 읽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천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고 저를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명예장관으로 알려진 키친 캐비닛으로 임명돼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심이 돈독하셨다 들었습니다. 박사님 또한 남해 사찰에서 100일 기도하고 불공 후에 얻은 손이라 집안에 불교가 깊이 자리잡혔을 듯인데, 불교가 박사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미국에서도 꾸준히 불교 신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교적 우주관 역사는 제 학문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진실이며 진리인가를 추구함에 있어 과학적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불교적 가치관, 역사관, 우주관에 담긴 과학적 성격이 이러한 제 연구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우주·역사관, 학문에 영향

-박사님께서 쓰신 책 <아시아 이상주의>는 미국 주요 대학에서 교과서로 상용될 정도로 명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연구를 하면서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왔던 바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문화의 속국이었고 일본이 한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도 한국이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고대에는 한민족이 일본과 중국에게 영향을 끼친 바가 적지 않았고, 아시아문명의 원조가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역사적 고찰과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42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30페이지 정도를 이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자 세계 학계에서 역사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역사재검토위원회 수장을 맡아 국제적 토론회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진리를



한국을 방문한 이홍범 박사가 신라호텔에서 현진 스님과 대담을 가졌다. 이 박사는 “로마가 무너진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라며 종교가 보이지 않는 정신권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불교가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불교가 세계인들에게 행동하는 자비를 보여줄 줄은 주었다.

사진=박재원 기자

전세계에 소개할 것입니다.

<아시아 이상주의>를 연구하며 느낀 것은 한민족이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 입장에서 진실은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발견되는 인류학적 고고학적 사료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동양문명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서구문명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문명의 어머니라 알려졌던 수메르 문명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말과 유사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메르 고대유적 또한 조사해보면 여러 형상들이 한국의 문화적 유산과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것인지요.

“미국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프린스턴, 예일 대학을 비롯, 전 세계 학계에서 역사, 정치 분야에서 첨단 연구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상주의에 대한 연구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제게 동서양을 비교하는 이상주의 이론과 활동에 대해 비교연구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아시아 이상주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돼 오면서 종교와 관련된 전쟁과 정치적 투쟁, 대립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저역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사피 현재에도 중동에서는 종교적 분쟁,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상주의의 활동

미래사회의 동력

역사를 움직인 건 경제, 물질 아닌

정신인력... 다름 아닌 '마음'

만우중생의 연기법은

세계 평화 위한 인생·우주·역사관

을 연구하기 위해 동서남북 고금동서를 망라하고 자연과학 이론까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총체적 연구방법론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동학,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소말리아의 이슬람 이상주의 운동 등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아우르면서 불교는 물론 기독교, 회교 등 주요한 종교적 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치활동과 관련해 비교연구했습니다.”

-대략만 들어도 하나의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고대와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그 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는 글인 듯 합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뿌리인 단군정신과 홍익사상을 강조하면서 이 사상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불교가 홍익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익사상을 불교사상과 비교해보면 요익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거

요. 기독교로 말한다면 사랑을 수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홍익사상은 불교의 보살사상과 상통하네요. 요익중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독선, 이기를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인류 평화와 자유사상이 세상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회는 내 것만, 우리 것만 하는 독선 배타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책에서도 말했듯 문화권마다 이상주의가 있습니다만 근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통념은 나와 남의 구분에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믿는 신은 전지전능하고 다른 신은 사람이라고 하는 등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있는 이항대립위에서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것이 독선과 배타로 가면 자기 선이 최고이고 자기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마음 간 대립과 증오를 생산하고, 악화되면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죠. 우주진리와 배타되는 역사가 아니라 진리관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이상사회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익중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불교의 요익중생은 조이함배타주의로서 남과 나,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주가 나 자신이고 내가 우주면,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됩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은 물론, 만우 중생이 모두 연기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

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주관이자 역사관, 인생관입니다. 최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나 부처님당시에는 공해가 없었기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전 세계 문제로 확대 됐습니다. 우주 공기를 실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공기가 좋아야 우리도 건강해질 텐데, 주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도 안전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익중생과 연계되며 인간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 수 있는 주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익중생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등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우주 생명체를 포함하며,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건강과 행복에 기적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류구원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책을 보면 우리나라 민중운동인 동학운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창시자인 최제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청년시절 절에서 살았으며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학사상운동은 평등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불교 사상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제우는 당시 조선에 밀려들던 서학의 흐름에 반대해서 유불선을 합해 동학을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독선과 배타를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는 불교의 우수한 마음수행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의 뿌리는 무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교와 불교 또한 서로 어울려서 절에 와서는 부처님께 절하고 명절 때는 조상님께 제사지냅니다. 이렇듯 동양의 종교들은 화합과 합행의 정신이 잘 살아있습니다.”

한민족은 아시아 문명의 원조

-박사님께서 과학적 역사학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는 불교의 무아의 역사활동, 무아적 자아활동의 필요성을 피력하시는데, 역사가란 무엇이며 평화를 위한 무아적 역사활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유사 이래 과학적 역사이론은 공산주의 역사관, 유물이 물질과 경제를 지배하고 창조한다는 변증법적 유물사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반대로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최고의 동력은 정신인력에 있다 생각합니다. 정신인력은 바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 일치합니다.

왜 인간은 평화와 전쟁을 오가면서 끊임없는 고통에 속박 당하고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나'라는 생각과 몸과 관련된 욕망을 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 몸과 관련된 육신의 욕망추구활동은 구름과 무지개 같은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무아 수행을 하면 무상 증득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했습니다.

저는 역사 활동을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謹賀新年

주 지 성 타

관장	종상	재무	총천
학장	덕민	사회	중민
선원장	종우	포교	성요
총무	종천	호법	각천
기획	정문	사서	정빈
교무	정수	회계	성명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한국, 보이지 않는 역사 정신권력 회복해야”



이흥범 박사는...
 일본 도쿄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역사를 전공,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와 옥스퍼드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키친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대통령과 함께 식탁에 앉아 편하게 식사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격의 없는 지인이다. 현재 헌팅턴 커리어대학 학장이며 세계정경협회 총재이기도 하다. 저서로 <아시아 이상주의>가 있다.

는 육신에 기초한 욕망 달성을 위해 투쟁하는 유아의 세계와 또 한편으로는 내 육신과 관련된 것은 무상한 것이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는 무아적 자아 투쟁을 통한 이상세계가 있습니다. 유아에 집착하는 역사와 정치 탓에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사 의식이 불교의 무아를 차용한 무아투쟁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무아적 역사활동을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강국 요소 ‘역사와 과학’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일어나고 파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냉정하게 비판하신다면요.

“어떤 나라가 선진강국으로서 부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와 과학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언어에 기초해 역사를 배우고 역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확립된 역사 정신에 기초해 민족의 공동추구목표를 정립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정신이 추구하는 자유, 신국가관에 기초해 천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의 야마토 정신, 중국 한족에 기댄 삼황오제로부터 시작하는 중화 정신, 영국의 성공회 정신이 그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무의식적으로 교육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연히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고 조상에 대한 숭모의 정신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국민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뭉치구요.

또한 외형적으로도 천황이라든지 조지 워싱턴, 링컨, 삼황오제, 관우 등 자기 민족의 조상을 기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민족을 통일시키고 국가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발휘해요. 어느 집단이든 통합을 시키려면 이러한 내형, 외형적으로 통일된 단결 상징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사회는 안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협력도 가능하고 여유로운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상징도 없을 뿐더러, 단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열

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 사회는 단합할 수 있는 역사정신과 목표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례로 기독교가 들어온 후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전통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기대할 수 없죠. 종교가 국가위에 군림함으로써,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핵심을 만들지 못하고 이를 파괴해 버립니다.

필수 교육 과목인 국사를 없애버린 것만 봐도 그렇죠. 일본은 거짓 역사를 만들어서 민족 통합을 꾀하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는 물론 단군상도 파괴

혼란스러운 한국사회

단합할 수 있는 역사 상징 없어
고유성 버리고 정치대국 따라가기 바빠
복사·모방은 한국의 비참한 실정

불교 나아갈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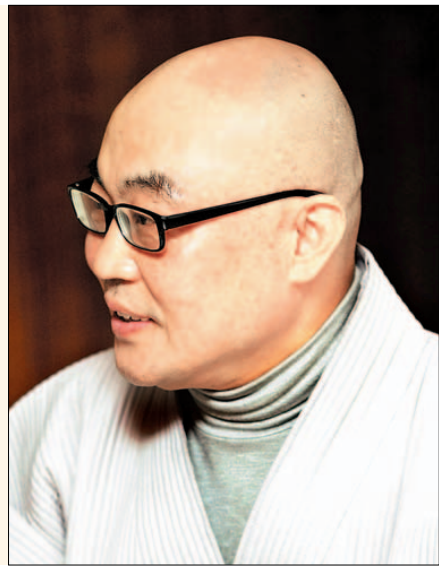
‘파사현정’ ‘함마호법’으로
행동하는 보살정신 살려야

해버립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말하길, 한국인처럼 ‘말’이 없는 민족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민족에 대한 충심을 상실하고 양심과 진리를 외세종교에 바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제1차, 2차세계대전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자국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속에는 현실적으로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종교가 언제 창조됐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는데에 관해 기술한 것, 이게 전부다 역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역사정신권력으로 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예요.

로마제국이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로마제국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의 역사정신권력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410년에 기독교를 국

현진 스님은...
 용문사에서 출가한 후, 화계사에서 승산 스님을 계사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개혁신회 및 제11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부장과 포교부장을 역임했으며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현재 여의도 포교원 원장이며 사단법인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이다.



교로 선포한지 18년 만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서양 강대국들의 공통점은 외래 종교 역사권력을 자기 조상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역사관으로 융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유한 것이 없다면 신을 만들어서라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도불교가 오면 인도불교에 종속당하고 당불교에 종속당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 최고 역사정신문화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항상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대국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복사와 모방, 주입식 교육 등은 한국의 비참한 실정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스스로 이스턴 바바리안(eastern barbarian, 동양의 미개인)이라고 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개탄할 만한 일이지요.”

—한국의 역사정신도 한국인에 의해 파괴된다는 의미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불교의 정신을 역사정신의 맥락에서 진단하신다면요.

“자비를 중시하다보니 파사현정, 즉 사를 타파하고 정을 일으키는 함마호법의 정신이 빈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당한 지성인 파사현정과 함마호법의 정신을 가지고 나쁜 것만 스님이나 신도에게 일벌백계의 준엄한 벌칙이 필요하답니다.”

직관적 지혜 활용, 현대 문명 발전

—한국불교의 수행중심은 간화선 수행을 통한 직관력에 의한 지혜의 응시, 생명, 세계에 대한 본질적 통찰에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수행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불교의 길은 행동하는 보살정신에 있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상구보리 하회중생이죠. 진리 추구를 참선수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물질 과학세계에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직관적 지혜를 현대 예술과 과학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동양의 지혜를 잘 활용하잖습니까. 불교는 합리성과 과학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총괄한 초과학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지성인 니체가 불교를 두고 그 어떤 종교보다 수백 배 과학적 종교라 했죠. 불교이론을 과학적

면에서 연구하면 우리 한국의 과학문명을 창조적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칼 융 같은 천재적 위인들이 전부 불교 공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세계적 이론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게르만민족과 일본인 유대민족이 세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불교의 명상을 통한 직관세계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명상을 통해서만이 직관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국과 피조물로 나누는 이항대립적인 세계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피조물 사이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사이에는 중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초중도 세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흑백논리로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뇌의 5프로밖에 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95% 지혜는 불교의 직관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사량분별을 초월하고 과학적으로 현대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정신권력의 위대한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행동하는 자비,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요즘중생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불교는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도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 경제, 정치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태로는 불교의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얼마 전 타계한 넬슨 만델라가 아닐까 합니다. 정계 은퇴를 만류하는 이들을 향해 ‘은퇴로부터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그는 일체의 집착과 이기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바로 이 마음이 평화와 자유의 정신 아닐까 합니다. 불교를 신앙으로 삼지 않아도 그러한 불교 정신이 갈등과 대립이 횡행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국민들 모두가 불성을 찾아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대답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흥범 박사의 아시아 이상주의 Asian Millenarianism

오바마와 인연 맺게 한 책
 아이비리그 등 최고 학술 서적 선정

한민족이 고대 중국과 일본의 원류
 홍익사상 통해 이상적 평화 이룰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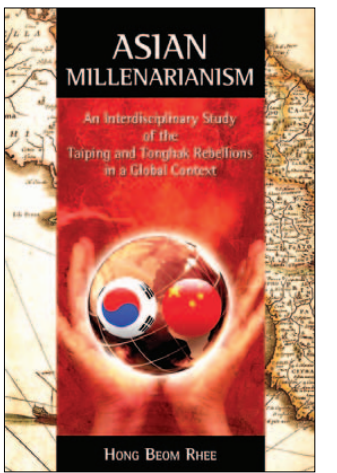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 질병과 전쟁, 빈곤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자는 분야가 바로 ‘이상주의’ 분야다. 책은 이러한 이상주의(Millenarianism)의 실마리를 한민족의 ‘홍익정신’에서 찾고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 이상주의에 대해 기술하고 이어 그 기원을 설명하면서 한국 이상주의 역사를 짚었다. 중국과 한국의 이상주의가 나올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4장부터 8장까지는 태평천국과 동학에서 이상주의의 원류를 찾고 이상주의에 대한 총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세계 역사가 갈등과 전쟁위에 놓여있는 것은 나와 너라는 대립적 이항구분 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이 독선과 배타로 흐르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증오를 생산하게 되므로 이러한 흑백논리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사상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홍익사상은 자유도 평등도 답을 수 있는 포용성 덕분에 세계적 이상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인류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평화사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이상주의>는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학술 서적으로 인정해 연구도서 목록에 포함됐으며, 펜실베이니아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영국의 캠브리지대, 독일, 캐나다, 유럽, 중동 등 명문대에서 연구 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이 세계 유수대학의 연구도서로 선정된 것은 기존의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고대 중국과 일본의 원류라는 것을 실증과 고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박사를 명예장관(키친 캐비닛)으로 임명하마 이다.



갑오년

2014년 새해 아침 인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謹賀新年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10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들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가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하며,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함없는 격려와 질책 깊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신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창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 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중국, 달라이나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7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 없음)



* 유사 단체 명칭 도용을 금합니다 *